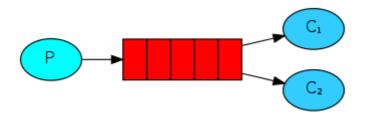
3. Worker Queue

Worker Queue

앞에서 기본적인 단일 Producer, Consumer, Queue를 활용하여 메세지 송수신을 작성해 보았다. 이번에는 Worker Queue라는 것을 작성해 볼 것이다. Worker Queue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여러개의 Worker(Consumer)에 분배하는것을 의미한다.



Worker Queue는 짧은 요청기간동안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지 못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적절하다.

실험 준비

Source Code: src/WorkerQueue

실험 준비에 앞서 기존에 작성한 코드에 변화를 주고자 한다. Worker Queue는 결국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에 대해 관찰 해야 하기 때문에 setTimeout() 함수를 활용하여 latency를 준다. latency는 인자로 전달하는 문자열 뒤에 오는 ' ' ' 가 수 하나당 1초로 가정한다.

```
ex) "Hello World..." -> 3초
```

앞에서 작성한 코드를 재활용한다. $send \cdot j set new_task \cdot j set$ 파일명을 변경하였으며, 코드에서 변경한 부분만 아래 첨부한다. 가장 크게 변경된 점이라면 프로그램 실행시 가변인자를 주고, 해당 내용을 메세지로 Queue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 new_task.js

const producer = async () => {
    msg = process.argv.slice(2).join(' ') || 'Hello world';

// Create Queue
    await channel.assertQueue(process.env.QUEUE_NAME, {
        durable: true
    })

...

channel.sendToQueue(process.env.QUEUE_NAME, Buffer.from(msg), {
        persistent: true
})
```

```
····
}
```

receive.js는 worker.js로 파일명을 변경하였으며, worker.js에서는 메세지에서 '.'의 개수만큼, 작업의 latency를 생성하는 로직을 작성한다. 위와 동일하게 변경된 부분만 첨부한다.

```
// Declare a Queue to send message
await channel.assertQueue(process.env.QUEUE_NAME, {
    durable: true
})

await channel.consume(process.env.QUEUE_NAME, (msg) => {
    const seconds = msg.content.toString().split('.').length - 1
    console.log('Recieved : ${msg.content.toString()}`)
    setTimeout(() => {
        console.log("Done!")
    },seconds * 1000);
}, {
        noAck: true
})
```

Round-Robin Dispatching

Queue를 활용했을때 장점중 하나는, 작업에 대해 병렬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작업이 많이 밀리거나 쌓인다면, worker를 추가해주기만 하면 된다. 즉, 하나의 Queue에 대해 worker들을 scale-out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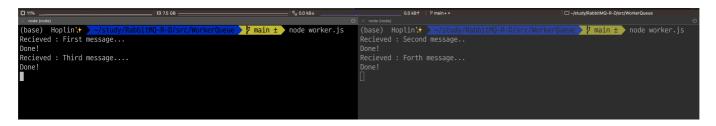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worker $_{\bullet}$ j s를 서로 다른 tty 세션에서 두 개 실행해준다. 이렇게 되면 이 두 worker는 동일 한 $_{\text{Oueue}}$ 에서 메세지를 받게 된다.

```
| 17868 | Polin'; | Node (mode) | Node (mode) | Polin'; | Node (mode) | Node (mod) | Node (mode) | Node (mode) | Node (mode) | Node (mode) | Node
```

이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new_task. js를 활용하여 Queue에 메세지를 보내본다.

```
(base) Hoplin∜
                                                      p main ± node new_task.js First message...
Make connection
Send message to MQ : First message...
(base) Hoplin' → ~/study/RabbitMQ-R-D/src/WorkerQueue / main ± node new_task.js Second message..
Make connection
Send message to MQ : Second message...
(base) Hoplin - ~/study/RabbitMQ-R-D/src/WorkerQueue / main ± node new_task.js Third message....
Make connection
Send message to MQ : Third message....
(base) Hoplin' → ~/study/RabbitMQ-R-D/src/WorkerQueue / main ± node new_task.js Forth message...
Make connection
Send message to MQ : Forth message...
                                                      🄰 main 🛨
(base)
       Hoplin → ~/study/RabbitMQ-R-D/src/WorkerQueue
```

다시 worker들이 동작하는 tty 세션으로 돌아오면 서로 다른 두 worker가 하나씩 차례대로 메세지를 받는것을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Rabbit MQ는 각각의 메세지를 순서대로 다음 Consumer(혹은 Worker)에게 넘겨준다.모든 Consumer들은 평균적으로 동일한 수의 메세지를 받게 되며, 메세지를 분산하는 방은 Round—Robin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Round Robin 방식이란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순서대로 시간단위로 할당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을 의미한다.(운영체제 스케줄러 회상하면된다.)

조금 더 체감하고 싶은 경우 worker를 하나 더 실행 한 후 테스트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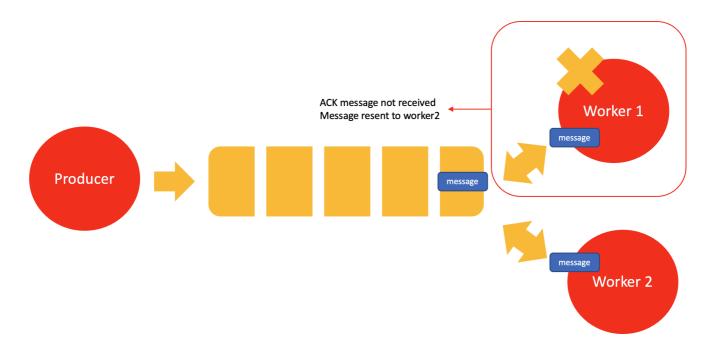
Message Acknowledgment

가정을 하나 해본다. 만약 consumer가 데이터를 받은 후, 오랜 기간동안 처리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worker가 처리하던 도중, 중단되었다고 가정한다.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Rabbit MQ가 consumer에게 메세지를 전달한 순간 해당 메세지는 삭제할 메세지로 지정된다. 앞에서 작성한 코드를 사용할때 위의 가정이 발생한다면, 해당 메세지는 그냥 없어지게 된다. 순수히 consumer에게 전달만 되고 데이터는 유실되게 되는것이다.

Rabbit MQ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것을 방지하고자 Message Acknowledgement라는것을 지원한다. 이는 consumer가 Rabbit MQ로 부터 데이터를 받은 후, 데이터의 처리까지 완료 한 후, 해당 데이터를 삭제해도 된다고 보내는 Acknowledge Message이다.

만약 consumer가 ack message를 반환하지 않고, 중단되게 된다면 Rabbit MQ는 메세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인지한 후, 메세지를 Queue에 다시 Re-Enqueue 함으로서 데이터 유실을 방지한다(Rabbit MQ의 Maximum Waiting Time은 30분이 기본값이라고 한다.). 만약 해당 Queue에 연결된 channel을 가진 다른 consumer가 존재한다면, 해당 consumer에 메세지를 전달해준다.



기본적으로 ACK Message옵션은 비활성화 되어있다.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channel.consume()(Document) 메소드의 옵션에 { noAck: false }를 추가한다.

데이터에 대한 작업 처리 하는 콜백함수(두번째 매개변수)에서 메세지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면 channel.ack((전달받은 메세지 객체))(Document)메소드를 사용하여 처리한 메세지에 대해 수신, 처리까지 완료한것을 Rabbit MQ에 ACK Message를 전송하여 알려주어야 한다.(이 과정을 생략하면 Queue에서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는다.)

데이터에 대한 작업(두번째 매개변수로 전달되는 콜백함수)이 끝났을때 ACK Message를 전송한다.(Document)

```
// worker.js
...

await channel.consume(process.env.QUEUE_NAME, (msg) => {
    const seconds = msg.content.toString().split('.').length - 1
    console.log(`Recieved : ${msg.content.toString()}`)
    setTimeout(() => {
        console.log("Done!")
        // 중요!
        channel.ack(msg)
      },seconds * 1000);
}, {
        noAck: fals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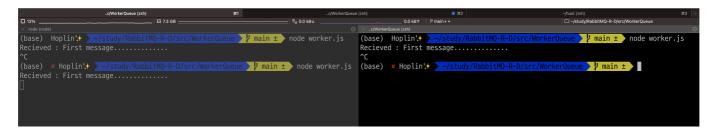
ACK Message는 메세지를 받은 동일한 채널에 전송해야한다. 만약 다른 채널에 전송하게 되면, 예외가 발생하게 된다.

이제 위 내용을 실험해 본다. Round Robin Dispatching실험할때와 동일하게 우선 worker를 두개 실행한다.



그 후 new_task₁js를 실행한다. 문자열 뒤에 점을 여러개 찍어 긴 시간의 latency를 준다.

worker중 왼쪽 worker기 메세지를 받게 된다. 그 후 Ctrl + C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메세지가 재전송되는것을 확인할수 있다. 왼쪽의 worker를 다시 실행한 후 오른쪽의 worker를 종료하면 다시 왼쪽의 worker로 메세지가 넘어가는것을 볼 수 있다.



Message Durability

앞에서 Message Acknowledge를 통해서 consumer가 멈추어도 메세지를 보존하는법에 대해 배웠다. 하지만, 만약 Rabbit MQ 서버가 멈추게 된다면 이 방법은 전혀 소용없는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Rabbit MQ가 멈추거나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모든 Queue들과 messages들은 모두 유실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작업이 요구된다.

- 1. Queue를 정의하는 channel객체의 assertQueue() 메소드에 옵션으로 { durable: true }를 추가해주 어야 한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 Rabbit MQ는 기존에 존재하던 Queue에 대해 옵션을 추가하여 재정의가 불가능하다. 앞에서 봤듯이 Queue는 멱등 성이 있기 때문이다.
- assertQueue() 메소드의 durable옵션은 producer, consumer가 동일한 값으로 설정되어있어야 한다. 만약 서로 다르게 정의가 되어있다면 아래와 같이 예외가 발생한다.

```
Error: Channel closed by server: 406 (PRECONDITION-FAILED) with message "PRECONDITION_FAILED - inequivalent arg 'durable' for queue 'new_task' in vhost '/': received 'false' but current is 'true'"

at C.accept (/Users/hoplin/study/RabbitMQ-R-D/node_modules/amqplib/lib/channel.js:421:17)
at Connection.mainAccept [as accept] (/Users/hoplin/study/RabbitMQ-R-D/node_modules/amqplib/lib/connection.js:63:33)
at Socket.go (/Users/hoplin/study/RabbitMQ-R-D/node_modules/amqplib/lib/connection.js:486:48)
at Socket.emit (node:events:512:28)
at emitReadable_ (node:internal/streams/readable:590:12)
at process.processTickSandRejections (node:internal/process/task_queues:81:21)

Emitted 'error' event on ChannelModel instance at:
at Connection.emit (node:events:512:28)
at ConsocketError (/Users/hoplin/study/RabbitMQ-R-D/node_modules/amqplib/lib/connection.js:361:10)
at Connection.emit (node:events:512:28)
at Socket.go (/Users/hoplin/study/RabbitMQ-R-D/node_modules/amqplib/lib/connection.js:489:12)
at Socket.emit (node:events:512:28)
at emitReadable_ (node:internal/streams/readable:590:12)
at process.processTickSAndRejections (node:internal/process/task_queues:81:21) {
code: 406,
classId: 50,
methodId: 10
}
```

소스코드를 변경해 본다. assertQueue() 메소드에 Queue의 이름을 변경하여 전달해 주어야 한다.(예시 코드에서는 env파일의 QUEUE_NAME 필드 값을 변경하면 된다. 이 예시에서는 Queue의 이름을 new_task에서 Durable_test 로 변경하였다.)

먼저 new_task를 실행한다. 그 후 Rabbit MQ Docker Container를 멈춘다



그 후 다시 Rabbit MQ Docker Container를 시작한다.

```
docker start rabbitmq
```

그리고 나서 worker를 실행하면, worker가 Queue로부터 메세지를 받아오는것을 볼 수 있다.

Fair Dispatch

Rabbit MQ는 기본적으로 메세지를 모두 worker에게 전송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메세지에 따라 처리작업이 오래걸릴 수 도, 적게 걸릴 수 도 있다. 이로인해, worker별로 한가할 수 도 있으며, 바쁠 수 도 있다. 이는 결국 메세지 처리에 있어 비효율성을 가져온다. Rabbit MQ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Queue에 연결한 worker에 메세지를 전송한다. 아래 이미지를 보면 기존 메세지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producer가 전송한 메세지는 Rabbit MQ에 의해 계속 worker로 전송되게 된다.

```
main ± node worker.js
Recieved : new3...
                                                                     p main ± node new_task.js new3...
Done!
                                                                    Make connection
Recieved : new3...
                                                                    Send message to MQ : new3...
Recieved : new3.....
                                                                     ^[[A<mark>%</mark>
Done!
Recieved : new3.....
Done!
                                                                    main ± node new_task.js new3.....
Recieved : new3.....
                                                                    Make connection
Done!
Recieved : new5.....
Done!
                                                                     p main ± node new_task.js new3......
Recieved : new6.....
                                                                    Make connection
Done!
Done!
                                                                    (base) Hoplin → ~/study/RabbitMQ-R-D/s

y main ± node new_task.js new3......

Make connection
                                                                    (base) Hoplin:

→ ~/study/RabbitMQ-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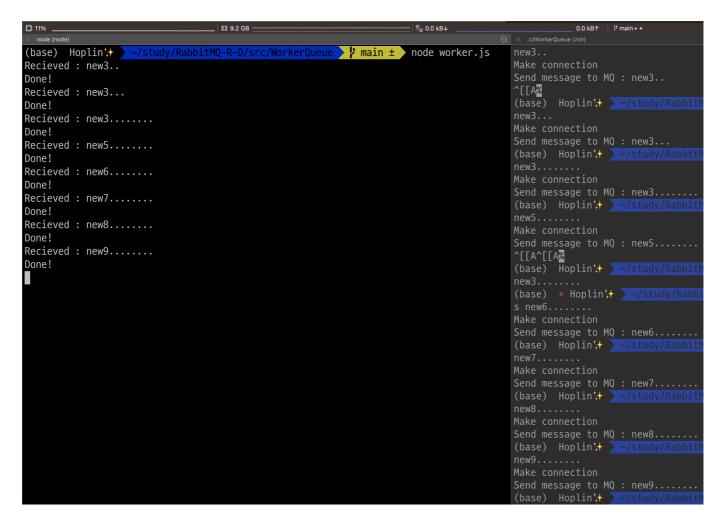
→ main ± node new_task.js new5......

Make connection
                                                                    ^[[A^[[D<mark>%</mark>
                                                                     p main ± node new_task.js new6.....
                                                                    Make connection
                                                                    🍹 main ±
                                                                    (base) Hoplin∵
                                                                     ∤ main ±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channel객체에 대해 prefetch() 메소드를 사용하여, worker별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최대 메세지 개수를 지정할 수 있다. 매개변수로는 worker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메세지 개수를 건네준다. 아래 예시에서는 worker가 한번에 하나의 메세지만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
// worker.js
...
channel.prefetch(1);
...
```

ACK Message송신 여부에 따라 새로운 메세지를 전송할 수 있는지 판별하므로, worker의 consume 메소드 옵션 { noAck: false }를 지정해 주어야한다. prefetch() 메소드를 적용한 이후 위와 동일하게 실험을진행해본다.



해당 예시 코드에서는 prefetch(1)로 적용하였다. worker가 메세지를 처리하는 도중 publisher($new_task.js$)가 메세지를 보내면, worker에 바로 전달지 않고, worker의 작업이 끝나면 메세지가 전달되는것을 볼 수 있다.

